

# 이정후, MLB 데뷔 3경기만에 홈런포 폭발...3G 연속 타점

시즌 1호 득점도 기록...김하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타율 0.167 하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6)가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정후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에 중견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전, 8회초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3-1로 앞선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등장한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불펜투수 톰 코스그로브의 몸쪽 스윙퍼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아치를 그려냈다. 타구속도는 168km였고, 비거리 123.7m 짜리 홈런이었다. 올해 빅리그에 데뷔한 이정후는 3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렸다. 앞선 두 타석에서 범타로 몰려난 이정후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이정후는 데뷔 3경기 연속 안타에 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이정후는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33(12타수 무안타)으로 소폭 떨어졌고, 시즌 4타점, 1득점째를 올렸다. 샌디에이고 김하성(29)은 유격수 겸 5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다. 세 번째 타석까지 무안타에 그친 김하성은 8회 좌익선상으로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파울이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3루수 팻 벨로 몰려났다. 전날 멀티히트의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167(18타수 3안타)로 낮아졌다. 샌프란시스코는 8회 이정후의 솔로 홈런과 마이클 곤포토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워 9-6으로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와의 개막전 패배 후 2연승을 달렸다.

## '역전 결승골' 손흥민 "주장답게 침착함 유지하고 싶었다"

토트넘, 루턴 타운에 2-1 역전승  
손흥민, 후반 41분 역전 결승골  
토트넘 통산 160골로 팀 역대 5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터뜨린 15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 타운과의 2023-2024 EPL 30라운드에서 1-1로 팽팽한 후반 41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15호골로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등과 함께 득점부문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는 엘리밍 홀란(18골·맨체스터 시티)으로 3골 차이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을 0-1로 뒤졌다. 후반에 내리 2골을 넣으며 뒤집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고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였다. A매치 이후는 평소보다 어렵다는 걸 안다"며 "초반에 고전했지만 결국 저력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점 3점을 얻어 큰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승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좀 더 일찍 경기를 장악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초반 실점할 때에는 좌절했지만 후반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의 맨투맨 마크가 쉽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져



야 한다는 걸 안다"고 보냈다. 손흥민은 전반 19분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시도한 오른발슛이 좌우측 골대를 연이어 때리며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손흥민은 "정말 아쉬웠다.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인 것 같다. 골대를 두 번이나 때리고, 선방에 막혔다"면서도 "주장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종료 휘슬까지 내 자신을 믿었다. 승점 3점을 얻는데 도움을 줬 기쁘다"고 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 팀에서 통산 160번째 골을 터뜨렸다. 1960년

대에 펠 공격수 클리프 존스(159골)를 넘어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단독 5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정말 자랑스럽다. 10년이 다 되도록 한 클럽에서 뛰는 건 믿기 어려울 만큼 정말 큰 영광"이라며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나를 지도해 준 모든 사람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득점왕 경쟁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팀을 위해 뛰는 건 개인적인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남은 9경기에서 모든 것을 다해 팀을 위해서 뛰고 싶다"고 밝혔다.

## 김민재 결장...뮌헨, 토르트문트에 완패하며 2위도 위태

2위 바이에른 뮌헨, 3위 슈투트가르트에 승점 4점차 추격 허용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또 결장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완패하며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다. 뮌헨은 3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023-2024 분데스리가 27라운드에서 0-2로 완패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일정을 소화하고 소속팀에 복귀한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16일 다름슈타트와 26라운드에 이어 리그 2경기 연속 결장이다. 또 6일 라치오(이탈리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까지 포함하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결장한 것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이탈리아)를 떠나 새롭게 뮌헨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겨울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잉글랜드) 출신 에릭 다이어가 합류하며 경쟁에서 밀려났다.

우승이 멀어진 뮌헨은 라이벌팀에 완패하며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다. 19승3무5패(승점 60)로 달아나지 못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슈투트가르트(승점 56)와 승점 차는 4점 그대로다. 선두 레버쿠젠(승점 73)과 승점 차는 13점이나 된다. 한편, 마인츠의 이재성은 라이프치히와 경기에서 후반 11분 카림 오니시위를 대신해 교체 투입됐다. 마인츠는 라이프치히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마인츠는 3승11무13패(승점 20)로 18개 구단 중 16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손흥민(아래)과 이강인이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C조 예선 4차전 태국과 경기 후반 9분 합작 골을 넣은 후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손흥민은 이강인의 도움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한국은 이재성의 선제골, 박진섭의 썩기 골을 묶어 3-0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 태극전사, 다시 하나로...비 온 뒤에 땅 굳어

아시아컵 내부 분열 있었지만 빠른 봉합  
이강인 패스-손흥민 골은 상징적인 장면  
황선홍 임시 감독, 태국 2연전 1승1무 수습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태국과 2연전을 통해 반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중요했던 다시 하나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지난달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로 불리는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충돌 소식은 아시아컵 4강 탈락과는 별개로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중요한 요르단과의 준결승 외나무다리 승부를 앞두고 벌어진 선수단 내분 소식의 후폭풍은 거셌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이 직접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임 감독의 경질, 어수선한 팀 분위기는 길을 잃은 A대표팀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 장면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고민 끝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을 이끌던 황선홍 감독에게 3월 태국와 월드컵 2차예선 2연전에 한해 임시 사령탑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황 감독은 21일 서울 경기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1위의 태국과 1-1로 비겼지만 26일 방콕 원정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임무를 충실히 마무리했다.

3승1무(승점 10)가 된 한국은 C조 1위로 최종예선 진출을 확실시했다. 6월 싱가포르, 중국과 5차전, 6차전을 남겨뒀다.

무엇보다 내분이 있었던 선수단을 다시 하나로, 원팀으로 뭉치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소집에선 태국전 결과보다 중요했던 게 선수단 내분 수습이었다.

향후 몇 년 동안 한국 축구를 함께 이끌어야 할 손흥민-이강인 쌍두마차를 계속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방치할 수 없었다. 돌의 화해와 별개로 팬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봉합하는 게 과제였다.

황 감독은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엔트리에 포함시키며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을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운동장에서

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소집에 응한 뒤, "아시아컵 기간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응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다. 모든 분의 쓴소리가 나한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는 기간인 것 같다.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였다. 이강인은 단단한 다짐을 경기력으로 증명했다. 특히 손흥민과 다시 하나가 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6일 열린 태국과 2차예선 4차전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9분 이강인과 손흥민이 골을 합작했다. 이강인의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왼쪽 측면에서 강력한 일발슛으로 연결해 태국의 골네트를 갈랐다.

손흥민은 득점 후, 자신에게 달려와 뛰어오른 이강인과 포옹한 뒤, 환하게 웃었다. 이강인도 활짝 웃으며 주장의 골을 축하했다.

"오랜만에 (이)이강인을 끌어안았는데, 너무 귀여웠다"며 활짝 웃은 손흥민은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셨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승부욕이 강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다름도 생긴다. 강인도 이번 경기로 많은 팬에게 다시 사랑 받고, 훌륭한 선수이자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다. 5000만 국민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단기 사령탑"으로 중책을 잘 마무리한 황 감독은 이제 2024 파리올림픽을 겨냥한다. 다음 달 열리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통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다시 단단히 하나가 된 선수단과 달리 라운드 밖은 여전히 시끄럽다. 선수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준 모습과 달리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협회장을 향한 팬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논란부터 하극상 논란, 전지훈전 중단을 겪고 한 카드놀이, 유니폼 뒷거래 의혹 제기 등 계속되는 잡음에도 뚜렷한 입장이나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팬들은 태국과 홈경기가 열린 관중석에서 "정몽규 나가"를 연달아 외쳤고, 정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비판하는 걸개를 걸기도 했다. 깃발을 흔들다가 경호원들과 부딪히는 불상사도 벌어졌다.

한국 축구의 그라운드 안과 밖을 보는 팬들의 운도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대한민국이 1:1 동점으로 경기를 마치자 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한 항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시스